

새희망의 길

새희망의 길
VOL.23



기획특집
창립 34주년 기념 꿈나무 아동
후원 및 '사랑 나누기' 봉사활동

현장24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의 허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KTTU 카툰
안식년 휴가제도

KTTU 레이더
지하철 1등 서비스 베테랑과 막내가 책임진다

오늘의 희망, 내일의 결실

모험소설 <보물섬>의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영원한 기쁨이며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해마다 수익이 올라 결코 버릴 수 없는 확실한 재산이다.”

땅을 보살피지 않고 팽개쳐 두면 그야말로 불모지에 불과하지만
 땅을 기름지게 가꾸고 정성껏 보살피면 풍성한 결실로 돌아옵니다.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희망을 품고 꿈을 위해 노력할 때, 희망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KT의 상황이 점차 좋아진 것은 조합원의 피와 땀이 견인한 결과입니다.
 조합원의 노력에 보답하고 조합원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이
 KT노동조합의 몫입니다.
 12대 집행부가 2년차를 맞이한 지금, 노동조합의 원숙함을 선보일 때입니다.

정도 경영, 휴일근무 실태조사, 노사합의사항의 철저한 준수 등
 조합원과의 약속을 돌이켜보며 해야 할 일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제2의 창립정신으로 작지만 강한 노동조합을 선언하고
 현장의 고충을 살뜰히 보살피는 믿음직한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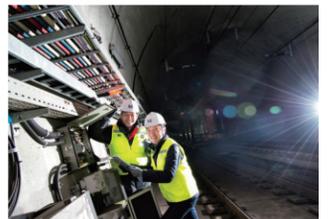


C o n t e n t s

vol. 23



KTTU NEWS	04	KTTU NEWS
기획특집	08	창립 34주년 기념 꿈나무 아동 후원 및 '사랑 나누기' 봉사활동
공감코칭	12	혈압 상승! 비호감 직장 동료 백태
이슈 & 사회	14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시장을 망친다?
현장24시	18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의 허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KTTU 카툰	20	안식년 휴가제도
토닥토닥	24	분위기 UP시켜줄 직급별 노래방 추천 가요
KTTU 레이더 01	26	지하철 1등 서비스 베테랑과 막내가 책임진다
KTTU 레이더 02	28	제주 및 전북 폭설피해 현장
BIC	30	KT가 이끌어갈 차세대 동력사업
길따라 멋따라	32	KT와 함께 떠나는 편안한 여행길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 후기 및 퀴즈



K T T R A D E U N I O N N E W S

C부문 현장 조합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시행

분기별 100명, 지역본부별 선발위원회에서 공정선발



2016년 조합원 사기진작 및 성과창출 동기부여를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 시행시기 : 분기별 시행 (상반기 限)
- 1분기 : 4월 중 (1~3월 실적기준)
- 2분기 : 8~9월 중 (4~6월 실적기준)
- 하반기 시행 여부는 추후 검토
- 시행인원 : 분기별 1백명 (상반기 2백명)
- 본부별 인원규모는 별도 공지
- 선발방법 : 지역본부별 선발
- 본부별 선발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 연수내용 : 해외 벤치마킹 및 리프레쉬
- 연수국가 및 세부 프로그램 안내는 시행 전 별도 공지

2016년도 정기 지방본부대의원대회 개최 힘찬 결의와 단결로 함께 가자!



KT노동조합은 2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12개 지방본부 별로 2016년도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방본부 집행위원 및 회계감사위원 선출 ▲2015년 지방본부 활동보고 및 2016년 지방본부 사업계획(안) 심의 ▲지부로부터 건의된 사항 및 결의문 채택 ▲기타 지방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우수 조합원을 시상했다.
정운모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집행부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 중 사소한 하나라도 허투루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힘 있는 사업과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의원 동지들께서도 중지를 모아 노동조합에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독려했다.

노사상생협의회 개최

경영현황 보고 및 안전 의결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월 23일(화) 분당 본사사옥에서 노사상생협의회를 열어 그간의 경영현황을 보고받고, ▲C부문 현장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1등 직무전문가(핵심인재) 추진방안 ▲UCC-노사랑 2016년 운영계획 ▲2016년 1등 KT 가족사랑 여행 안전을 모두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C부문 현장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2015년 전속향진 성과에 대한 격려와 2016년 현장 몰입도 향상을 위한 사기진작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인원 규모는 분기별 1백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1등 KT가족사랑 여행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을 통한 글로벌 체험 기회 제공 및 애사심 고취가 추진 배경이다. 1등 직무전문가 추진방안은 성과에 대한 인정/자금심 및 경력개발 기회를 부여하여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조합원들을 각 분야 리더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노사는 이외에도 UCC-노사랑 2016년 운영계획을 의결하고, 곧 이어 토론 안전인 제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문화 정착방안에 대한 격렬한 토의를

벌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는 지난 1, 2차 노사합동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휴일근무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 의견과 이의사항을 공유했다.
한편, 노동조합 정운모 위원장은 이미 취임 초부터 정도경영 준수, 노사합의 사항 철저이행 등과 함께 비정상 휴일근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실행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15년 하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 수감



규약 제43조에 의거 회계연도 2015년 하반기 중앙 회계감사

- 수감기간: 2016년 2월 22(월) ~ 2월 26(금), 5일간
- 수감장소: 중앙본부 대회의실
- 수감내역: 2015년 하반기 지출증빙 일체
- 회계감사위원(총 7명)
- 대표위원: 부산지방본부 창원지부 김상찬
- 간사: 대구지방본부 안동지부 김시동
- 회감위원
 - 경북지방본부 중앙지부 구자철
 - 강원지방본부 강릉지부 김중국
 - 본사지방본부 국제통신운동센터지부 김남수
 - 전남지방본부 목포지부 박철오
 - 충남지방본부 서대전지부 임재한

2016년도 정기 지부대회 개최

전국 대의원 248명 및 1개 지부 지부장 선출

KT노동조합은 2월 15일(월) 전국적으로 2016년도 정기 지부대회를 열고 노동조합의 기초단체인 각 지부의 2015년 지부사업 활동사항과 2016년 활동계획을 해당 소속 조합원에게 보고했다.

이어 현장의견을 노동조합 집행부에 전달하고 2016년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 사결정에 참여할 대의원 선거를 진행, 248명의 대의원 및 지부장 1명의 선출을 완료했다.

대의원은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신입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발생 결의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선출된 대의원 및 지부장 명단은 아래와 같다.

2016 전국대의원 명단

강북 지방본부(30명)

김재준(강북고객본부), 이완재(중앙), 최석순(원호), 김동현(서대문), 전용섭(은평), 기남로(신촌), 이재형(광화문), 인윤식(동대문), 박종국(광진), 이주호(성수), 하태쇠(종랑), 박용성(노원), 김정호(도봉), 손영국(월곡), 김종성(강북), 이창주(고양), 박종율(덕양), 이진구(파주), 이원용(의정부), 김산성(동두천), 이동철(포천), 진정현(구리), 정성호(남양주), 황건선(양평), 박철성(강북무선운동센터), 강윤식(서울중부유선운동센터), 김명수(서울동부유선운동센터), 유지영(경기북부유선운동센터), 최호규(IP운동센터), 박근우(강북엔지니어링센터)

강남 지방본부(27명)

박현진(강남고객본부), 손득모(송파), 박정상(강동), 유병탁(가락), 유광섭(강남), 전성욱(반포), 정차석(서초), 이성구(신사), 박성순(양재), 오은호(수원), 신양호(남수원), 이창일(동수원), 김대진(용인), 김용배(수지), 지영근(여주), 김학능(이천), 김재후(평택), 이송찬(안성), 정상철(오산), 남기형(화성), 허남일(분당), 오정근(경기광주), 이정형(성남), 이호근(하남), 허정식(강남무선운동센터), 정영근(서울강남유선운동센터), 황윤규(경기남부유선운동센터)

서부 지방본부(33명)

김용철(서부고객본부), 김수홍(강서), 강일모(가양), 김혜광(목동), 최종문(구로), 김영필(금천), 한원호(개봉), 안진홍(영등포), 김성배(여의도), 김진규(동작), 유희수(관악), 엄금용(대방), 최오희(안양), 임영락(서안양), 이평수(군포), 김덕기(안산), 유광림(동안산), 허준호(시흥), 박성산(부천), 차홍열(북부천), 민형식(부평), 김오철(계양), 이정각(인천), 박은규(연수), 박원호(송의), 김윤철(서인천), 김철호(김포), 안상호(항동), 윤웅현(강서무선운동센터), 김성만(서울남부유선운동센터), 최희웅(인천유선운동센터), 허종욱(미디어운동센터), 박연조(강남엔지니어링센터)

부산 지방본부(39명)

정영근(부산고객본부), 정정석(동부산), 김수택(양산), 박상일(동래), 이기학(연산), 김경철(기장), 최형진(서부산), 김진용(사하), 이동수(영도), 김동철(남부산), 유진철(해운대), 이성철(서면), 김미아(대연), 이창림(수영), 남상길(북부산), 황일용(김해), 고정규(구포), 김상찬(창원), 정성민(마산), 서명구(밀양), 박영용(진해), 윤해(함안), 백한준(울산), 임태일(남울산), 김석준(동울산), 이식원(안양), 강동만(진주), 김원용(거제), 김도형(통영), 권구호(사천), 김익중(거창), 박찬기(산청), 왕용길(부산무선운동센터), 최영철(부산유선운동센터), 윤태근(경남유선운동센터), 최용석(울산유선운동센터), 유병철(부산엔지니어링센터), 이성동(부산국제센터), 이재수(부산고객센터)

대구 지방본부(27명)

추고권(동대구), 김종우(수성), 손상학(경산), 이영택(영천), 김수영(달서), 박순목(남대구), 하중열(중대구), 김주학(달성), 정영식(서대구), 허운하(북대구), 정명호(칠곡), 김동영(구미), 박명서(김천), 천명호(상주), 이원종(포항), 윤웅현(경주), 최진환(울진), 이찬원(안동), 송홍경(영주), 윤원상(문경), 권오용(청송), 육상욱(대구고객본부), 차용대(대구유선운동센터), 이준석(동대구유선운동센터)

터), 이재연(경북유선운용센터), 김경호(대구무선운용센터), 김성삼(대구엔지니어링센터)

본사 지방본부(14명)

이영인(기업고객컨설팅센터), 최종국(수납지원센터), 봉미애(국제전화국), 민병훈(BizCRM센터), 한익희(IMO운용센터), 이희찬(네트워크관제센터), 안이호(국제통신운용센터), 정주형(현장기술지원단), 김용범(융합기술원), 이성갑(Infra연구소), 김상현(Service연구소), 김수진(구매지원센터), 천성영(그룹인재개발아카데미), 임천수(본사)

전남 지방본부(19명)

이인철(전남고객본부), 이육현(북광주), 김광수(수완), 고일남(담양), 선종민(서광주), 강성봉(광주), 한승학(남광주), 정영근(나주), 박상수(목포), 홍유선(강진), 채희원(해남), 신봉주(순천), 심금식(광양), 김응연(여수), 김정필(호남무선운용센터), 류재수(광주유선운용센터), 박상운(전남유선운용센터), 박홍주(호남IP컨설팅), 박태규(호남엔지니어링센터)

전북 지방본부(9명)

윤기성(전주), 임정택(북전주), 진홍윤(남원), 노용환(익산), 김성수(군산), 이광욱(정읍), 정광모(김제), 박호남(전북고객본부), 김형선(전북유선운용센터)

충남 지방본부(24명)

안상표(충남고객본부), 한금수(서대전), 김명길(서대전지점), 이광엽(유성), 성기세(세종), 장대연(논산), 김용섭(공주), 주현수(홍성), 장동인(서산), 윤효중(당진), 김용길(부여), 김성용(보령), 명노승(예산), 신선섭(천안), 김성수(아산), 조규정(남천안), 김경찬(대전), 박재웅(용진), 윤용재(신탄진), 강희석(충청무선운용센터), 정학영(대전유선운용센터), 이종훈(충남유선운용센터), 오동윤(충청엔지니어링), 권승태(충청IP컨설팅)

충북 지방본부(9명)

장남전(충북고객본부), 이영무(청주), 이학승(서청주), 신한식(옥천), 최재용(충주), 여필구(제천), 이춘영(금왕), 장민철(진천), 김종원(충북유선운용센터)

강원 지방본부(12명)

안상진(춘천), 윤필상(홍천), 황원중(화천), 권창순(강릉), 박광호(속초), 박한수(동해), 박준수(원주), 엄기현(평창), 박영섭(태백), 이혁중(강원고객본부), 최희동(강원무선운용센터), 박재호(강원유선운용센터)

제주 지방본부(5명)

현성환(제주고객본부), 홍관표(제주), 최태종(신제주), 이조희(서귀포), 김희철(제주네트워크)

SK그룹-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서명지 제출
16,736명의 인수합병 반대 서명지 제출

KT노동조합은 2월 15일(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KT 조합원의 서명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T가 최대 케이블방송업자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전격 발표한 이후, SKT의 독과점 확대로 인한 KT 조합원과 ICT 노동자의 생존권 및 방송통신 공공성의 훼손



한 서명운동을 하여, 16,736명이 이번 인수합병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노동조합은 방송의 지역성 훼손, 공정경쟁시장의 혼탁을 일으킬 수 있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 심사 기준과 절차의 투명함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2016년 상반기 리프레시 휴직 시행



- 대상 및 휴직기간
- 신청대상 : 전 직원(상무보/임원/계약직 제외)
- 근속 10년 이상자 : 6개월 휴직

- 근속 20년 이상자 : 6개월 휴직 또는 1년 휴직 중 선택

■ 신청 자격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휴직, 교육파견 등으로 정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휴직복귀 예정일 기준)

■ 선발 절차

- 공고 → 지원서 제출 → 심의 → 최종선발
- 휴직 희망자는 부서별 인사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제출
- 부문/본부별 인사위원회 후 인사권자(부문장/지역본부장)가 최종 선발
- 신청동기, 업무성과, 복직 후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급여 및 평가 등 세부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상반기 초등자녀 대상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 지원대상 선정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월 1일(월), 본사 KBN 방송실에서 조합원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210명을 선정했다. 이번 추첨에는 노사 각 2명씩, 노동조합 한호섭 사업지원실장, 최장복 조직실장과 회사측 이원준 인사기획담당, 김무성 경영지원담당 상무가 참여했으며, 13개 기관별 박스추첨을

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지난 2월 4일(목) 성명을 내고,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에 걸쳐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절대반대'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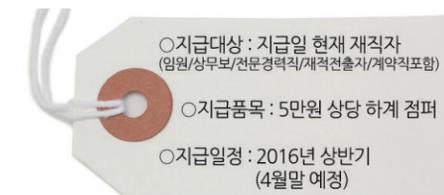
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지난 2월 4일(목) 성명을 내고,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에 걸쳐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절대반대'를 위

통해 진행했다.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은 조합원 자녀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것이며, 교육지원 대상은 초등 4, 5, 6학년 자녀를 둔 조합원과 직원이다. 2015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초등학생 자녀 화상영어 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지속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총 210명의 학생은 오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6개월간 화상 영어교육이 진행되며,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는 Rhythm & Beat 교재 및 원어민 화상영어, Writing 첨삭(주 1회), Junior TOEIC Test(격월)가 제공된다.

※ 선정자(4, 5, 6학년 각 70명) 명단과 예비 후보자 명단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 바랍니다.

2016년 하계 점퍼 지급 안내



신청위치 : KATE > ERP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하계점퍼 신청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종사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단체교섭 합의(2015.11.16)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5만원 상당의 하계 유니폼은 디자인을 개선하여 2016년 상반기 중 지급한다.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자

- 임원/상무보/전문경력직/재직전출자/계약직포함

■ 지급품목 : 5만원 상당의 하계 점퍼

■ 지급일정 : 2016년 상반기(4월말 예정)

■ 배송방법 : 지급일 당시 소속기관으로 일괄 배송

■ 신청위치 : ERP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하계점퍼 신청

※ 세부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문화 시행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올해 중점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휴일근무를 철저히 근절하여 조합원 삶의 질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의 근무문화」를 정착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1. 기본방향 : 제때, 집중적으로, 스마트하게 일하고 실 때 확실하게 휴식
 - 성과와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휴일근무 및 연차일 근무 근절
 - 불필요한 보고서 줄이기, 짧은 회의 등 스마트하게 일하는 문화 확산
2. 시행방안

■ 근무문화 개선

- 휴일근무는 반드시 사전 계획보고 및 복무승인 후 시행
 - 휴일근무 최종 승인자 직상급자 → 차상급자(상무보급)로 상향 조정
 - 토요일 근무 시 대체휴무 부여, 일요일 휴일근무 지양
- ※ 휴일근무 불가피한 분야는 부문별 자체 계획에 의거 시행
- 휴일(연차)근무 기준 위반 시, 직책자 경고/시정 요구(누적 3회시 징계)
 - 휴일 사옥방문 시(업무/비업무 불문) 입구에서 방문목적 기재
 - 사옥별/층별 휴일근무공간 별도지정 운영(사무실 근무자 限)

■ 일하는 방식 혁신

- 연중 균등한 연차사용 권장(샌드위치데이, 명절 전·후 등)
 - '보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보고 줄이기 추진
 - 회의자료 사전공유, 종료시간 엄수, 단시간 회의 시스템딩 회의 활용 등
3. 시행일정 : 2016. 2. 1 ~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
정부는 법적 근거 없는 양대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KT노동조합은 29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 최근 정부의 양대 행정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강력한 현장투쟁 ▲광범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한국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일한 대외 형성을 다짐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2월 24일 2016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노동존중 가치 실현과 노동약법 국회 통과 저지, 2대 행정지침 무효화를 위해 노동약법을 강행하려는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김동만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위법적인 양대지침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2016년 한국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계속되는 반 노동 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19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전사 KPI 관련 노사협의

노동조합, 공정평가와 현실성 강조

KT노동조합과 회사는 1월 27일(수)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전사 KPI 관련 노사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사는 2016년 평가방향을 설명하고, 앞으로 노동조합과 더욱 체계적인 협의를 거쳐 평가적용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체적인 부문별 KPI 지표를 분



석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자세히 점검할 것을 강조한 뒤, 현실적인 목표설정으로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후, 분야별 세부적인 KPI 관련 차기 회의는 노동조합 담당장과 부문별 실무자 간 집중협의로 진행했다.

정 위원장, 새해 첫 출근하는 조합원들 격려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은 지난 1월 4일(월) 오전, 강남지방본부에서 첫 출근하는 조합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덕담을 건넸다. 이후 강남지방본부 강당에서 열린 '2016 KT그룹 신년 결의식'에 참석하여, 조합원을 격려하고 2016년에도 수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노동조합 시무식에서도 "회사의 영업이익이 좋아진 것은 종사원의 피와 땀이 견인한 결과"라고 말한 뒤 "이러한 조합원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이 노동조합의 몫"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존경받는 1등KT분과회의 열려

무급휴일근무 근절 위한 실행방안 논의



KT노동조합과 회사는 1월 26일(화)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노사상생협의회 산하 분과인 존경받는 1등 KT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분과장 및 노사위원 변경 사항을 보고하고, '제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문화' 정착방안과 심리상담센터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

노동조합 올해 중점 사업방향이자 정윤모 위원장이 연초 신년사에서 강조한, 제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문화를 위해 노사는 ▲불필요한 휴일근무 및 연차일 근무 철저히 근절 ▲휴일근무 필요 시 사전계획 보고 및 공식적 복무승인 후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특히 토요일 근무 시 정상 복무처리를 부여하고 일요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휴일근무 허용 지침을 정립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심리상담센터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 팀 상담/힐링캠프를 통한 조합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 소통에 기여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높은 이용만족도에 따라 2016년의 주요 추

진계획을 설정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주요 관리대상 사전감지 시스템 강화로 위험요인 선제대응 ▲정신건강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활동 강화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활성화 ▲감정노동 직무 및 그룹사 대상 심리상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은 또 C&R팀의 스트레스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C&R팀의 심리상담 확대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초과근무수당 상향, 의료비 자녀 지원연령 확대 등

2016년부터 보수, 복무를 포함한 주요 제도의 내용이 개선됐다.

■ 의료비 : 자녀 지원연령 확대

- (기존) 만 20세 이하 → (변경) 만 26세 이하
- 직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녀기준
- 단,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지원연령 상한 미 적용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限)
- 주택자금 : 신청서류 제출시기 완화
- 대상서류 : 주택 임차/구매 신규 계약서
- 제출시기(기존)대부신청 시 제출 → (변경)대부금 수령 후 15일 이내

■ 긴급가계자금 대부 : 대부규모 확대(年 200억 → 年 300억)

- 연 2회(1월, 7월), 각 150억 대부
- 운영 프로세스, 대부한도, 이자율 등 세부내용은 2015년과 동일
- 기관별 직원 수에 비례하여 대부금액 배정
- 1인당 대부한도 1,000만원

■ 야식비 : 지원금액 인상

- (기존) 일 1,400원 → (변경) 일 3,000원
- 교대근무자의 석근(또는 야근) 1일당

■ 급식통근 보조비 : 상한기준 폐지

- (기존) 21일 기준 27.3만원 → (변경) "폐지"

■ 장기근속 보로금 : 지원기준 상향 등

	10년(신설)	20년(80만원 상향)	30년(50만원 상향)
	100	70 → 150	100 → 150

※ 근속 40년(150만원) 폐지. 장기근속자 생활임소 폐지하되, 수련관 신청 시 우선배정

■ 안식년 휴가제 : 도입

- 안식년 휴가와 개인연차휴가를 함께 연속 사용(분할사용 불가)
- 해당 근속 도래일로부터 1년내 사용

근속년수	10년	20년	30년
안식년	5일	8일	8일
연차	5일	7일	7일

■ Pay-Band 제도: 임금협약과 연동하여 직급별 하한액 조정

- (기존) 직급별 기준연봉 하한 고정 → (변경) 임금협약 인상분만큼 하한액 인상

■ 초과근무수당 :

1. 초과근무 인정시간 상향

- (기존)월 23시간 → (변경) 월 24시간
- 교대근무자 :월 18시간 → 19시간

2. 감액기준 완화

- (기존)월 휴가 7일 초과시 → 10일 초과시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자기계발비 신청 안내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자 (전문경력직, 재직전출자 포함)
- 사용방법

- 자기계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 사용자 후지급(사외교육, 학원, 자격취득, 도서구입, 체력

단련, 기타 등)

■ 지원금액 : 매년 1인당 연간 50만원

2015 단체협약 주요 변경사항 요약

개정사항	비고
제27조(육아 및 불임휴직)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한다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기준 (변경)
제40조(부당공제의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긴급가계자금 대부금	항목(추가)
제62조(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안식년휴가 조합원이 근속 10년, 20년, 30년 도래시 다음 각목의 휴가를 부여하며 세부 운영기준은 회사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10년 도래시 : 5일 나. 20년 도래시 : 8일 다. 30년 도래시 : 8일	(안식년휴가 추가)
<청원휴가 中 사망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 1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 5일	(청원휴가 기간 변경)
<청원휴가 中 출산부분> 여성조합원의 산전·산후휴가 : 90일(70일 초과분은 무급) 단, 다태아의 경우 120일(90일 초과분은 무급)	(다태아 부분 추가)
제82조(특별채용) <순직, 공상 퇴직 시 직계가족 특별채용 부분> 당해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당해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신청	신청기한(변경)
제12장 고용안정 및 사회적책무 제112조(정년 및 재고용) ①직원의 정년은 2016년 1월 1일부터 만60세로 하며, 정년 퇴직시점은 매월 단위로 산정한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이 정년퇴직하는 경우 기 도입된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시행하여 회사의 선발심사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토록 하며, 재고용규모 및 기간, 근로조건 등은 노사간 별도로 정한다.	(신설)
제113조(근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회사는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제114조(사회적책무) ① 회사는 국민기업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한다. ② 회사와 노동조합은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노사의 사회적책임을 성실히 실천하며, 노사가 주도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신설)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

KT노동조합, 창립 34주년 기념 꿈나무 아동 후원 및 '사랑 나누기' 봉사활동



인간의 몸에는 자연살상 세포라는 것이 있다. 인체의 수많은 면역세포 중 하나로 우리 몸에 해로운 바이러스를 스스로 찾아 없애는 역할을 하는 세포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치유 세포는 언제 가장 활성화 될까.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다. 마더 테레사처럼 헌신적으로 봉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에 면역물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가 있는 일보다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기부나 봉사를 하고 난 후,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항체인 'Ig A' 수치가 월등히 높아진다는 학계의 여러 실험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남을 돕고 난 뒤 생기는 심리적 포만감으로 체내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엔도르핀을 3배 이상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재력이나 권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여유롭고 편안한 얼굴을 종종 보곤 한다. 이는 기부와 봉사가 갈수록 삭막해지는 현실 공동체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삶의 용기가 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플러스알파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념식 대신 복지시설 찾은 정 위원장, "큰 꿈과 따뜻한 마음 잃지 말라" 독려

KT노동조합이 지난 2016년 1월 6일, 창립 34주년을 맞아 기념식 대신 스포츠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운모 위원장을 비롯한 전임조합 간부 40여명은 용인시의 사회복지법인 선한 사마리아원을 찾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후원 및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 정운모 위원장이 임직원 중심의 통상적인 창립기념식을 거행하던 기존 관행 대신 함께 하는 자발적인 사회적 나눔 행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사마리아원은 KT노동조합이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이다. 봉사활동은 정운모 위원장의 멘토링으로 시작됐다.

아이들 앞에 선 정 위원장은 잠시 회상에 젖는 듯 하더니, 질풍노도와 같은 자신의 청소년 시절의 경험담과 '한 때의 어려움으로 잠시 방황했던 적도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긍정적인 마음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잃지 않았다'는 고백을 들려주었다. 이어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의 소중한 사회구성원"이라고 격려한 뒤 "온 세상을 안을 수 있는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해 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군고구마 굽기, 족구대회 등 동심으로 돌아간 즐거운 한 때

이날 행사에는 KT노동조합의 간부뿐만 아니라 KT Wiz 야구단의 하준호, 김선민 선수도 함께했다. 하준호, 김선민 선수는 야구공에 싸인을 해주고 기념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으면서도 아이들과 눈을 맞추느라 얼굴에서 웃음이 가시질 않았다.

하준호 선수는 "대대적인 기념행사 보다 아이들과 만나게 되는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돼 금번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어 스스로도 행복했고, 활기차고 밝은 아이들 모습을 보니 뭔가 모르게 뿌듯하고 안심되더라”고 전했다.

김선민 선수 역시 ‘유난히 추운 올 해, 누구보다 추웠을 아이들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기쁘다’면서 “비상한 솜씨와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KT Wiz의 슬로건처럼 아이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능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하준호, 김선민 선수가 아이들과 뒤엉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한쪽에서는 일부 간부들의 식기세척기 옮기기가 한창이었다. 사마리아원 주방에 놓여질 식기세척기는 노동조합이 기증한 것으로, 무게가 무려 200kg가 넘는 초대형 세척기다. 장정 대여섯 명이 달려 붙어도 여간 해산 꿈쩍도 하지 않는다. 어른 키를 훌쩍 넘는 사이즈이다 보니 이쪽에 세 명, 저쪽에도 세 명이 붙었건만 언감생심, 한 두 번에 움직일 리 만무다.

“어이, 반대쪽! 하나 둘 셋 하면 들자니까 왜 안 드는 거야?”

“원 소리야, 젓 먹던 힘까지 내는 중이구먼. 그 쪽이야 말로 힘 좀 제대로 쓰라고!”



결국 이 날의 미션, ‘식기세척기 옮기기’는 주방 아주머니들의 배움을 한 바탕 잡은 후에야 간신히 완료할 수 있었고, 식기세척기를 나른 일부 간부들의 몸에는 각종 파스가 덕지덕지 붙여졌다는 후문을 남겼다. 주방에서 ‘으샤 으샤’와 ‘으악’이라는 의성어가 교대로 들려오는 한편, 복지관 야외에서는 한 겨울 최고의 간식, 군 고구마 냄새가 솔솔 풍겼다. 목장갑을 낀 황성관 사무총장이 구워낸 호박 고구마가 노오란 속살을 드러내며 아이들을 유혹한다. 아이들과 간부들이 복지관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며 짬짬이 군고구마를 먹는 사이, 정윤모 위원장과 야구 선수들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점심식사 준비를 서둘렀다.

나눔, 행복한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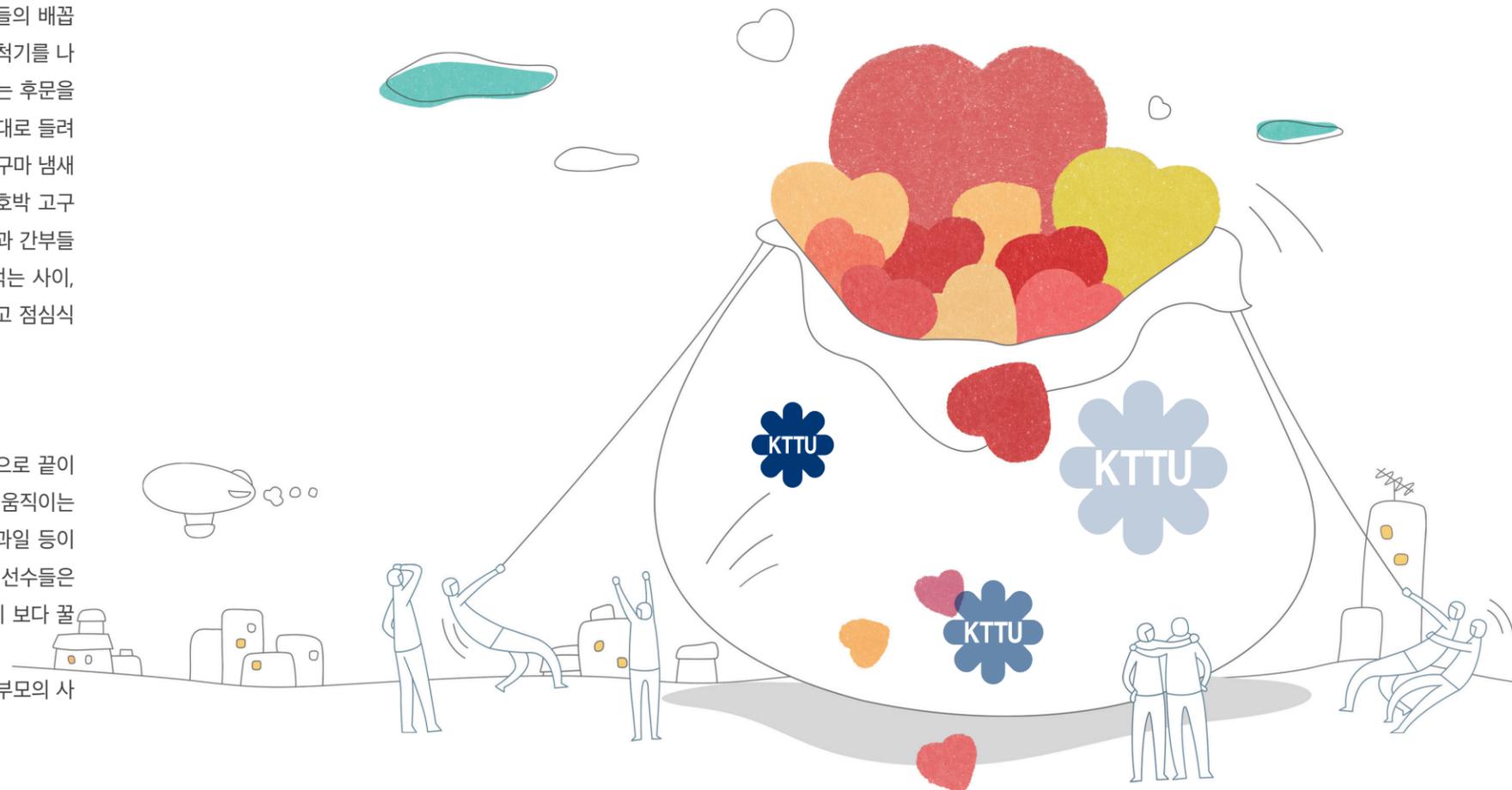
덕분에 이날의 봉사활동은 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이었다. 메뉴는 정 위원장과 하준호, 김선민 선수가 분주히 움직이는 손으로 직접 고명을 얹어 정성껏 마련한 떡국과 신선한 과일 등이다. 아이들이 다 먹을 동안 기다리느라 정작 정 위원장과 선수들은 통통 불은 떡국으로 배를 채워야 했지만 그 어느 산해진미 보다 꿀맛이었다.

“모든 아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 우리 아이들처럼 부모의 사

랑과 보호를 받으며 구김 없이 자라야 하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웃음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였다” 정 위원장은 말한다. 정형화된 기부가 아니더라도 평생 마음에 남는 추억을 아이들에게 선사하고 싶었다고.

한 해 두 해 조금씩 실천할 때마다 나눈 어떤 형태로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활동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 보람도 그만큼 늘었다. 정 위원장은 “우리들만의 잔치였던 창립기념식을 잠시 접어두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각계각층의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희망만으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만, 반대로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다. 봉사를 굳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넘어진 옆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러한 작은 행동 하나면 된다. 옆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쓰러진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줄 수 있는 작은 마음, 작은 행동 하나가 곧 이 공동체와 사회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들 혈압 상승! 비호감 직장 동료 백태



이른바 직장 내 ‘돌아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SNS 상에서 화제다. 어느 회사, 어느 부서로 가든 비상식적인 사람 하나 짬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의미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그런 존재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단다. 언제 터질 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그들! 2016년에는 그런 불안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장 내 꿀벌 견 군상들을 유형별로 모아봤다.



업무 떠넘기기 형

‘너의 일은 너의 일이고, 나의 일도 너의 일이다’라는 이기적인 발상을 가진 이들이 있다. 주로 직장 상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상사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그 자리에 올랐으므로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어느 조직에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금융업 종사자 김모 씨(28)가 그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부서 막내인 그는 업무 과다에 시달려 주말을 잊은 지 오래다. 결국 회의를 통해 업무를 재분배했다. 하지만 김 씨의 업무가 줄어든 것을 안 선임 이모 대리(33)가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일 없잖아?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하는 이 대리! 그러나 김 씨에게 일을 맡기고 그는 태연하게 인터넷 쇼핑을 즐기기 일쑤였다. 그런 이 대리를 보며 김 씨는 서랍 속에 넣어둔 사직서를 자주 확인하게 되었다.



성과 가로채기 형

흔히 업무 떠넘기기는 자연스럽게 성과 가로채기로 이어진다. 직장 상사가 업무를 떠넘기고 뒤늦게 합류하면 성과는 고스란히 상사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대형 건설사 직원 이모 씨(29)는 능수능란한 김모 과장(36)의 결재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자신이 따낸 수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 결재 서류에 담당자로 김 과장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던 것. 평소 일은 본인이 떠맡고 대접은 김 과장이 받는 것에 불만이 많았는데, 성과가 나오자 김 과장이 본인 이름까지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결국 이 씨는 고과에서 ‘C’를 받고 김 과장은 ‘A’를 받았다.



업무 방해 형

올해 한 식품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정모 씨(29)는 ‘메신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사수 신모 대리(33)가 설 새 없이 메신저를 보내기 때문이다. 신 대리는 정 씨에게 ‘어제 저녁엔 뭘 했는지’, ‘오즘 여자친구와의 사이는 어떠한지’ 같은 사적인 이야기부터 직장 상사와 동료들 험담까지 끊임없이 메신저로 전달했다. 너무 바빠 제때 답을 못 보내기라도 하면 일장 훈계가 따라왔다. 심지어 신 대리는 정 씨를 옥상으로 불러내 사회생활의 기본에 대해 시시콜콜 늘어놓으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비(非)매너 형

하루 8시간, 일주일 중 닷새, 한달이면 20일, 연간 240일 이상을 함께 하는 직장 동료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긴밀한 사이이다. 따라서 사소하고 일상적인 생활습관이나 개인적인 버릇에서 불쾌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홍보대행사에 근무하는 홍모 씨(33)는 아침마다 두통에 시달린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 가득찬 불쾌한 냄새 때문이다. 진한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 전날 회식 때 먹은 삼겹살 냄새까지 뒤섞여 골이 다 지끈거린다. 자주 세탁하지 않고 반복해서 입는 데다 냄새 흡수가 쉬운 겨울철 외투의 경우 더욱 심한 악취를 풍긴다. 사무실에서 손톱을 손질 하거나, 복도에서 칫솔질을 하거나, 맨발로 슬리퍼를 신는 등 공동생활의 에티켓을 망각한 행동을 볼 때마다 불쾌감이 치솟는다.



선택 강요형

공동생활이라는 원칙하에 개인의 취향은 목살 당하기 쉽다. 대세에 따르는 것이 서로를 위해 최선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싫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신입사원 서모 씨(28)는 햄버거나 피자, 스파게티 같은 양식을 즐긴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하는 점심 시간에는 메뉴 선택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얼큰한 국물을 선호하는 박모 대리(33)는 서 씨의 메뉴 추천을 번번이 일축한다. 그런 음식은 데이트 할 때나 먹으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함께 먹는 음식이니 때때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도 먹어주면 좋으련만 매번 부대찌개와 순대국밥만 먹으려고 고역이라고. 결국 서 씨는 가끔 약속을 핑계로 혼자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먹기도 한다.



사생활침해 형

사진 공유 SNS를 즐기는 윤모 씨(27). 주말이나 휴일이면 친구들과 맛집 투어나 쇼핑을 즐기고 SNS에 사진을 올려공유한다. 그 내용을 번번이 포착한 직장 상사 이모 대리(32)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뭘 했는지 사사건건 추궁하며 간섭한다. 심지어 윤모 씨 본인이 갔던 디저트 카페나 맛집, 명소들을 재현하

기라도 하듯 이 대리가 똑같이 SNS에 올리기도 한다. 어쩐지 스토킹을 당하는 것같은 기분이 들어 불쾌했지만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탈퇴 하자니, 이 대리 눈치 때문에 조심스럽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관계에 리스크가 생길 것이 두려워 혼자 떠나는 경향이 있다. 상사나 동료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인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필수다.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서둘러 사과 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전달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불만스러운 동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반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동료의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운지, 나의 어떤 면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지 세심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미움은 자기 안에서 싹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매사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으로 임하여 더욱 편안하고 여유있는 직장생활을 누리보자.

ISSUE & SOCIETY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거대공룡이 시장을 망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소식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평범한 M&A으로 보이는 두 거대기업의 합병은 실상 시장의 지배력을 장악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은 물론, 나머지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둔화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동통신과 케이블방송 두 거대 기업의 인수합병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시장지배력 쏠림 걱정하는 학계의 우려

이동통신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오쇼핑에 속한 CJ헬로비전의 지분 53.92%중 30%를 5천억 원에 인수하고 오는 4월 안으로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CJ헬로비전도 지난 2월 11일 공시를 통해 지난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현재 정부는 두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측은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사업기반 확보를 통해 인터넷기반의 OTT(Over the Top)를 포함한 뉴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라는 자체 전망을 이번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명분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 합병되면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이 심해져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SKT·CJ 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이 점이 중요하게 부각됐다.

패널로 나선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가 손을 잡으면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며, 정부의 시장정책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도 “이번 기업 합병이 승인되면 SK텔레콤의 결합 상품으로 소비자가 쓸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수평 결합 자체만으로도 지배력이 높아지는 판에, 거기에 결합상품이 더해지면 시장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대부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수평적 결합이라 시장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높아져 시장은 물론 방송의 공적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인수합병이 몰고 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침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SK텔레콤이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어 지역의 자연스러운 여론형성에 제약을 받고 지역방송의 정체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케이블 가입자를 IPTV로 유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케이블방송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되면 나머지 케이블도 다들 팔리길 원할 것이고 결국 케이블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두 회사의 합병이 과연 방송 공정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에서 중요한 여론을 생산하고 선거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케이블방송이 대기업에게 인수 합병되어선 안 된다는 얘기도.

시민 60%, 공룡의 출현을 반대한다

이동통신업계에도 SK텔레콤의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향상’ 전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다. 전형적인 내수 기업 간의 M&A 성격이 짙은 이번 합병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들의 글로벌 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 업계의 뚜렷한 반응이다. 업계뿐 아니라 이번 합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

인 산업에 적용되는 논리를 방송통신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앞서 언급했던 학계는 물론 언론과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뿔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한 시민단체에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0.6%가 ‘특정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를 이유로 두 기업의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일’이라는 찬성 답변은 20.9%에 머물렀다. 시민들조차 ‘거대 기업의 합병이 시장의 건전한 형성을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T노동조합에서도 [통신방송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KT와 CJ헬로비전 합병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KT 조합원 1만 6천 736명의 서명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바 있다.

두 거대 기업의 합병은 단순한 M&A만을 뜻하지 않는다. 무선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가입자 420만여 명을 보유한 케이블 TV 1위 업체이자 애플폰 사업시장 최대 점유기업인 CJ헬로비전이 몸뚱이를 합치게 됨으로써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거대 공룡’이 탄생할 수 있다. 한 회사가 이동통신, IPTV, 초고속 인터넷에 이어 케이블TV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유무선 시장의 지배력이 한 회사에 집중되는 독과점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다.

소수 기업에 의해 시장이 독식된다면 서비스 가격이 상승되고 독점기업들의 서비스 투자가 줄면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거대 공룡에게 집중된 시장의 지배력은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려 시장을 파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뿐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국내 시장의 황폐화와 국내 이동통신, CATV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통신·방송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KT의 CJ·JV 인수합병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KT노동조합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SK가 CJ·JV(CJ헬로비전)를 인수합병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막대한 자원의 힘을 가진 SK가 역시 시장지배력이 큰 CJ·JV를 합병하여 유료방송 시장마저 독점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 인 인수합병이 승인된다면 한국이동통신, 불하, 신세기통신 합병, 하나로 통신 합병에 이어 정부의 손 들어주기로 유료방송시장까지 SK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지역방송 1위 사업자를 인수합병할 경우, 공평경쟁이 불가능하고 시장이 혼탁해져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지난 130년 대한민국 통신역사를 이끌어온 자랑스런 책임감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민한 울림을 맞고 있는 KT그룹 중 시원과 20년 그룹 가족의 생존권이 막대한 독과점에 의해 위협 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번 인수합병은 결국 중소 규모의 지역방송사업자가 고사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지역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함께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압도적 강조하는 고용창출은커녕 수많은 일자리가 원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시장독점의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국민의 편익을 심각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방송통신 시장을 모두 SKT가 장악하게 되어 공평 경쟁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통신 선택권이 박탈될 것이며 이동통신 1위 사업자를 말쑥한 1위 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기만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관된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KT는 49년만의 시련을 극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겨우 겨우 이 자리에 오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이 추진된다면 KT는 49년만의 시련을 극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겨우 겨우 이 자리에 오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의 허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라는 말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뜻이다. 현 정부에서는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지역 창조경제의 고른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미래창조과학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한 지 이제 1년. KT가 전담 지원하는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는 글로벌 스타트업의 창업 허브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신모델을 만들어가는 그곳을 찾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떤 곳?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한마디로 지역의 창조경제 관련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보육 종합 공간이다.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북, 경북, 부산, 세종, 서울 등 전국 주요 경제거점 도시 18곳에 차례로 문을 열었다.

센터마다 대기업이 전담해 창업 컨설팅과 법률, 금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역 거점의 중소, 중견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돕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창업 허브 역할에 주력한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3월30일 센터 가운데 여덟 번째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문을 열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지역은 엔씨소프트, 넥슨, 안랩 등 국내 대표적인 IT 대

기업과 중견기업,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870여개 기업 6만여 명이 근무하며 글로벌 창업 중심지가 될 지역적 특색을 갖춘 곳이다. KT의 경기혁신센터는 이 중심에 자리한다.

글로벌 진출의 전진기지

경기혁신센터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다름 아닌 인테리어다. 마치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무실 한 곳을 옮겨놓은 듯 색다른 분위기다. 103평 규모의 네트워킹 공간인 1층과, 공의회실, 글로벌 서포트센터, 다목적홀 등 입주기업을 위한 공간, 그리고 모바일,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로 꾸며진 387평 규모의 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센터 중앙에는 5대의 3D 프린터와 스타트업이 만든 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50대 이상의 각종 스마

트폰, 태블릿 PC가 전시되어 있다.

이 공간 안에서 KT에서 파견되어 글로벌사업팀과 창조사업팀을 꾸려가는 6명을 포함, 경기도 각 금융기관에서의 파견직원 30여 명과 함께 센터보육기업 100여 명이 함께 일한다. 경기혁신센터의 중점 과제는 핀테크(기술금융), 사물인터넷(IoT), 게임, 차세대 이동통신(5G)에 특화된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것이라 글로벌사업팀 팀장 박진백 조합원은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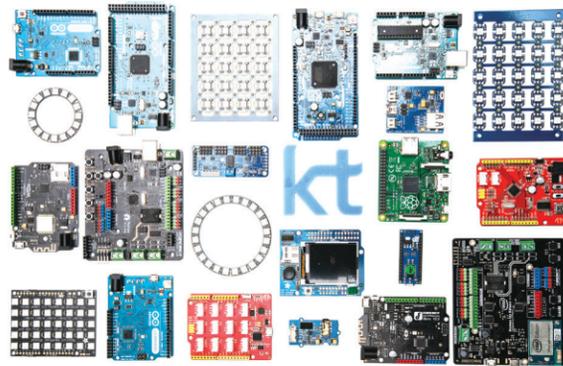
“경기혁신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국 18개 혁신센터를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진출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죠. 타 지역 글로벌 진출 희망기업에게 해외전시회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참가 지원하고 글로벌 투자박람회도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경기혁신센터를 통해 해외 전시회, 교육프로그램, 데모데이 등에 103개 기업을 참가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이미 구축한 글로벌 온/오프 플랫폼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올 1월부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혁신센터의 유망 벤처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영문 웹사이트 스타트업코리아도 오픈했다. 이는 혁신센터와 해외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혁신센터가 출범 때부터 기획했던 프로젝트다. 케이챔프 랩(K-Champ Lab), IoT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활발하다.



왼쪽부터 손영훈, 이우찬, 박진백, 노희진



창조사업2팀 이우찬 팀장은 “지금까지 케이챗프 랩을 통해 선발된 기업들에게 국내외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하고, 프랑스 1위 통신사 오렌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오렌지랩’과 연계해 파리과 도쿄 등 4개국에서 열리는 데모데이(Demo day)에도 참가”했다며 “지난해 상하이에서 개최된 세계최대 통신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는 5개 스타트업의 참가를 지원해 입주 기업들이 투자 유치 및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사업이 궤도에 오른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게 창조사업2팀 손영훈 조합원의 말이다.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2월에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 5개 스타트업을 비롯해 IoT·ICT 대학생 창업 공모전에서 수상한 2개 팀의 아이템을 전시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성장해 상용화단계까지는 아직 4~5년은 더 지나야 한다고 봐요.”

전국 유일의 핀테크지원센터 갖춰

또 하나, 경기혁신센터가 독보적인 것은 핀테크 지원이다. 전국 센터 중 최초, 그리고 유일하게 핀테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전문가들이 상주해 자문을 진행하고, 법무부,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전문가로부터 법률과 금융, 특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센터도 갖춰져 있다. 최근 경기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지원도 핀테크 쪽이 대세다. 이우찬 팀장은 “홍채인식 보안 솔루션 회사인 이리언스는 경기센터 핀테크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소개했다. “Ebay의 송금결제서비스인 ‘페이팔’이나 Google의 전자지갑 ‘구글월렛’처럼 이미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리언스는 케이챗프 랩 1기 선발기업입니다. 홍채인식 관련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ITU 텔레콤 월드에 센터의 지원으로 참가해 우수기업상을 받았고, 지금은 KT의 자회사 KT telecop와의 업무협약으로 출입통제 등 서비스 시장 확대를 함께 도모해 가는 중입니다.” 경기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지원 사례는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 지난해 11월 방한해 이곳을 찾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또한 이리언스의 홍채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한 핀테크 금융 서비스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해외 방문 귀빈들을 안내하는 역할은 주로 글로벌사업팀 노희진 조합원의 몫이다. “경기혁신센터는 서울과 가깝고 창조경제라는 모델이 현 정부의 대표 정책 아젠다인 만큼 한국에 오시는 귀빈들은 이곳에 많이 들르시죠. 미국, 프랑스, 중국, 스페인, 불가리아, 핀란드 등 작년



에만 약 100개국 700명 이상의 각국 장관과 고위 공무원 관계자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성과 창출 가시화되기까지의 노력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만큼 경기혁신센터의 근무환경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이곳 조합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게 주요 업무인 만큼 스타트업을 자주 만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첫째다. 노희진 조합원은 “그들이 풀 수 없는 문제, 예를 들면 KT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연계, 또 타지역의 혁신센터를 통해 다른 대기업과의 연계나 해외 네트워크와의 미팅 주선같은 경우 최선을 다해서 연결”해 주지만, “그 다음은 스타트업이 공격적으로 파고들어 나가야 하는 몫”이라 말한다. 물론 업무의 애로 사항도 없을 수 없다. 지난 해 개소 당월에는 3D 프린터실의 후처리 부분 연결 호수가 터져 프린터실에 물이 차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 밖으로는 물이 세지 않았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업화를 지원해서 관련부서에 회의나 미팅을 요청한다 해도 정작 업무가 바쁘다거나, 때로는 솔루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박진백 팀장의 설명이다. “새로운 서비스나 솔루션은 기존 형태의 사고방식과 달리 열린 마음을 갖고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사

업이니만큼 사업부서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주고 피드백 해 주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많은 힘이 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의 성공신화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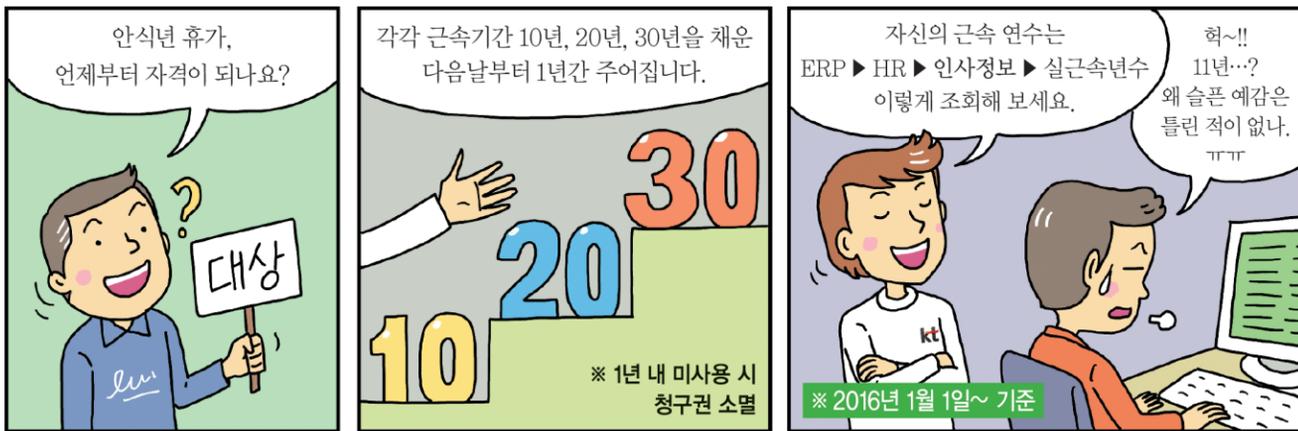
경기혁신센터의 성공사례는 KT의 성장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그만큼 유망기업을 발굴해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다. 이런 점에서 “혁신센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센터 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이 일부 부서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일 수 있다. 그 아쉬움은 어쩌면 실질적인 스타트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할애한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도 비례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최강자로 꼽히는 구글과 애플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 사례다. 그들이 필요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사들여 적재적소에 투입하며 회사를 키워 나갔다. 경기혁신센터는 의심할 바 없이 보육기업들이 각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가 되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보다 큰 성공신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5G기술과 기가인프라를 갖춘 KT가 몸을 사리지 말아야 할 때다.



신설된 안식년 휴가 제도

쉽게 알아봅시다

만화 김재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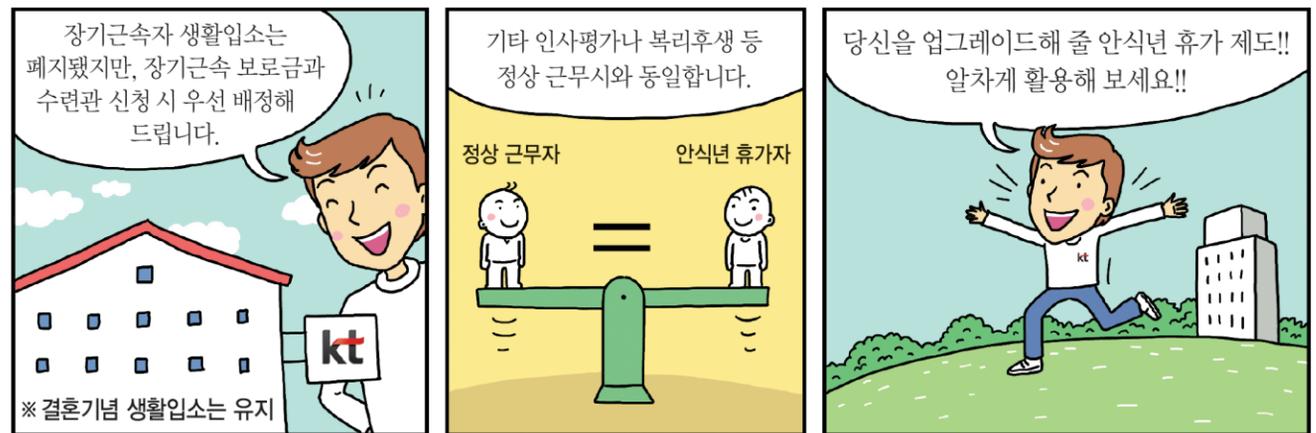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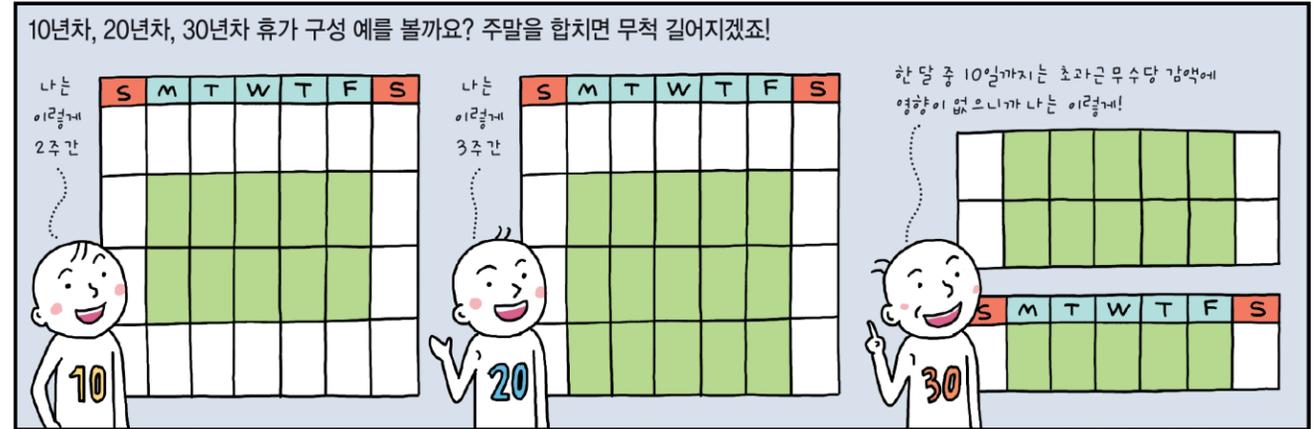


안식년 휴가 부여 일수와 본인 연차를 함께 씁니다.

※ 본인 연차 사용일은 추가로 더 붙여 연속사용 가능

근속년수	만 10년	만 20년	만 30년
안식년 휴가 부여일	5일	8일	8일
본인 연차 사용일	5일	7일	7일
총 휴가 기간	2주	3주	3주

신청위치 : ERP > HR > 휴가신청 > 복무유형 <안식년 휴가> 선택



분위기 UP시켜줄 직급별 노래방 추천 가요

연말연시에 이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마다 다시 찾아오는 회식모임. 든든한 식사를 시작으로 호프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나면 2차는 으레 노래방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나이 많은 상사와 혈기왕성한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최상의 애창곡을 모아봤다.



회식자리에선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급이모인 만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노래방의 핵심 에티켓. 물론 노래방이 누구에게나 즐거운 회식장소는 아닐 것이다. 눈치 빠르고 놀 줄 아는 분위기 메이커에겐 무척이나 즐거운 곳이지만 암전한 성격 혹은 음치에겐 하염없이 불편한 장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노래방 입구에서 한숨을 내쉬며 좌절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노래방은 노래실력을 뽐내는 곳이 아닌 모두를 존중하고 공감할 줄 아는 매너와 의지를 보여주는 곳을 잊지 말자. 이제 마이크가 당신 손으로 넘어왔다. 음정, 박자 다 틀려도 좋으니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리모컨 버튼을 힘껏 눌러보자.



나
신입

첫 곡의 부담을 세미 트로트로

신입사원 추천곡

박상철의 <무조건>은 전국민의 잔치송으로 자리 잡았다. 멜로디가 경쾌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따라 부를 수 있는 트로트 노래방 첫 곡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띤 신입사원에게 추천할 만한 노래다. 트로트 특유의 꺾기 창법을 잘 살려서 맛깔나게 부르는게 좋으며 상사를 향해 약간의 아부성 모션을 취해주면 다음날부터 예뻐(?)을 받을 수도 있다. 신입사원이 여성이라면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장윤정의 <어머나>를 권한다. 원곡의 포인트만 잘 짚어 불러도 선배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콧소리나 꺾기가 간드러지게 들어가는 부분을 잘 파악해 두었다가 신경 써서 부르면 원래 실력보다 잘 부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노래에 자신 없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강추!



나
대리

분위기메이커에겐 '말춤'이 제격

대리 추천곡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몸 바쳐 부르기 적당한 곡이다. 모든 안무를 소화할 필요 없이 포인트인 말춤만 확실하게 추더라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가창력보다 안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음치 직원들에게 제격이며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호응 또한 덩달아 높아진다는 점을 잘 이용하자. 단, 평소 자신의 이미지도 고려해야 하니 술김에 과한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당신이 여성 상사를 모시고 있거나, 부서의 청일점이라면 박현빈의 <사방사방>을 부르는 것이 좋다. 후렴구에서 상사를 향해 위트 있는 손짓을 곁들이거나 윙크, 다소 느끼한 미소 등을 더해 코믹하게 불렀을 때 여성 상사들은 최고의 즐거움을 느낀다. 당신이 센스가 있다면 후렴구 사이에 개사를 통해 약간의 아부를 발휘하는 것도 상사로부터 좋은 점수를 따는 방법이다.



나
과장

90년대 가요는 뭘 불러도 OK!

과장 추천곡

90년대 가요엔 발라드를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좋아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가득하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정현의 <바뀌>를 부르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가자. 가창력이 부담이라면 롤라의 <날개 잃은 천사>, DJ DOC의 <DOC와 춤을>, <Run to you> 등을 불러도 좋다.

요즘은 노래방 벽에 각 세대별로 히트곡을 정리해 붙여놨으니 선곡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마구마구 불러도 신나는 곡이 끊이지 않는 화수분이 바로 90년대다. 음치인 김 과장의 노래실력을 가려줄 노래는 노래목록 속에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 편히 노래 부르자.



나
차장

마무리는 언제나 조용필, 이문세로

차장 이상 추천곡

조용필과 이문세는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리는 백 선생의 '만능 간장'이라 할 수 있다. 당대의 세대는 물론 모든 세대가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단한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는 80년대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이 애창되는 노래방 베스트 가요다. 단체 회식이나 워크숍 등 흥을 돋우기에 이만한 노래가 없다. 노래를 못해도 좋으며 시원시원한 목소리를 지녔다면 더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조용필 버전이 좀 올드하다 싶으면 연령대를 고려해 이승기의 리메이크 버전을 불러도 좋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역시 난이도가 높지 않고 적당히 흥겨운 리듬을 갖췄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서든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다. 특히 엔딩곡으로 떴창하며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쏟아내기엔 적절하다.



지하철 1등 서비스 베테랑과 막내가 책임진다

강북네트워크운용본부 지하철엔지니어링팀
김재신, 정배기 조합원

자정이 다가오자 헬멧과 안전장구를 착용하느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24시 22분, 왕십리행 막차를 끝으로 분당선 서울 숲역 역사 안의 조명이 모두 꺼지더니 마치 어두운 동굴 속을 더듬듯 운행이 끝난 선로 위를 헤드랜턴에 의지하며 능숙하게 장비를 점검한다. 관록의 베테랑과 막내 조합원이 만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구슬땀 흘리는 현장을 소개한다.

4시간 동안 이어지는 시간과의 사투

“지하철은 하루 트래픽의 60%가 출퇴근길 러시아워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막힘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하철 내의 유지보수와 관리감독을 저희 지하철엔지니어링팀이 맡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하철팀 ‘창단 멤버’라고 소개하는 김재신 조합원은 지하철 내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전반적 관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그를 포함해 전체 12명으로 이루어진 강북네트워크운용본부 지하철엔지니어링팀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선로를 제외한 지하철 내의 원활한 서비스 운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지난 1년여 동안 분당선 34개 역사의 품질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4일 일정으로 진행된 서울숲역 작업 마지막 날로 고참인 김재신 조합원과 함께 정배기 조합원도 늦은 밤 이곳으로 출근했다.

“2013년에 입사해 네트워크부문 지하철엔지니어링팀으로 배치 받았어요. 망 구축에서부터 운용과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한 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생각했거든요. 타부서에 비해 다양한 업무를 익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메리트에 이끌려 지하철엔지니어링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서른셋의 나이로 여자친구가 있을 법하지만 일에 몰입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때문인지 “아직 연애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며 극구 손사래를 친다. 그런 그를 향해 김재신 조합원이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팀의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일에 관해서라면 열정을 따라갈 이가 없다”며 잔뜩 치켜세운다. 관록 깊은 선배와 열정 가득한 막내 조합원이 함께한 현장근무에선 그들의 뜨겁고도 남다른 팀워크가 쉽게 감지된다. 이유인 즉,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료 애가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때문”이라고 김재신 조합원은 말한다.

“지하철엔지니어링팀만큼 팀워크가 좋은 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양한 업무를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어 업무 습득이 매우 빠르는데다 후배들 모두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2만5천 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도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맡은 지하철엔지니어링팀 조합원들과 협업작업을 수행하는 kt Engcore 직원들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철칙은 새벽 4시까지 어떻게든 모든 작업을 마치고 승강장 밖으로 철수해야 하는 점이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원청사인 지하철공사로부터 무기한 작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선 작업하는 내내 현장을 쉬지 않고 뛰어다녀야만 하죠. 더욱이 주말이면 한 시간 이상 작업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터널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기 일쑤예요.”

지하철에 중독된 서비스 지킴이

오랫동안 지하철 업무를 담당해온 그들로부터 발견되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지하철에 관한 무한한 애착(?). 관리감독을 맡은 김재신 조합원이 지하철 운행이 끝난 후 시간과의 사투를 벌인다면, 최적화 업무를 담당한 정배기 조합원은 지하철이 운행하는 내내 서비스 품질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트북을 든 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역사 곳곳의 최적화를 살펴야 합니다. 벤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야 할 때가 많아요. 번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 숲을 헤집고 다니며 이리저리 치이는 것을 감수해야하죠. 일을 하다보면 간혹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땅바닥에 앉아 대체 뭐하느냐며 의아한 반응을 사곤 해요. 만약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멀쩡히 생긴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노트북을 주시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마음속으로 꼭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웃음)”

정배기 조합원은 최근 노선이 연장된 신분당선과 수인선을 비롯해 올 7월 개통되는 인천 2호선을 추가로 담당해야 한다. 그리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이통사 중 KT의 서비스가 단연 1등”이라며 업무에 관한 강한 자부심을 내비친다. 정배기 조합원의 든든한 각오와 함께 김재신 조합원도 조합원들을 향해 메시지를 빼놓지 않는다. “우리는 원청사인 지하철공사와는 종속적 관계를 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KT 유관 부서들로부터 협조를 통해 무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조합원 여러분들이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다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서비스 품질에 이상 조짐이 보일 때마다 즉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KT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합원들 모두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제주, 하얗게 고립된 45시간 방전된 여행객의 마음을 충전하다

지난 1월 말, 제주도는 강한 바람과 32년만의 폭설로 운송수단이 모두 끊긴 채 하얀 감옥이 되고 말았다. 북새통을 치른 건 제주공항이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9만 여명의 여행객들은 난민의 처지를 방불케 했다. 공항 활주로는 23일 오후 5시 50분경부터 통제됐고, 숙소를 얻지 못한 여행객 3,000여 명은 공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노숙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모포와 물, 빵과 간식, 단열매트 등을 공수하는 등 관계 기관이 총력을 기울였지만 여행객들의 항의는 잇따랐다.

가장 시급한 것은 휴대전화 충전이었다. 육지의 가족과 회사 등에 연락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운항이 재개될 때 까지 무료함을 달래 줄 유일한 수단도 휴대전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항 내 전압장치로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공항공사에서 콘센트를 대거 설치해 충전을 도왔지만 역부족이었고, 전압장치 앞에는 충전하려는 이들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KT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여행객들의 휴대전화 충전이 시급할 것이라 판단, 24일부터 대합실 내 게이트 앞에 'olleh 스마트폰 충전소' 부스를 마련해 24시간 배터리충전과 무선충전대여서비스를 시작했다. 더구나 통신사 구분 없이 필요한 누구라도 무료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생수도 공급했다. KT의 등장에 서울에서 온 유 모씨(37세)는 '한시름 놓게 됐다. 회사일이 급했는데 다행해 해결했다.'며 감사를 표했고, 타 통신사를 사용한다는 여행객은 'KT는 이런 서비스도 하는데 왜 내 통신사는 오지 않는 거냐.'며 칭찬에다 꾸밈을 섞기도 했다. 운항통제가 해제된 건 고립 45시간 만인 25일 오후였다. 운항 재개 소식에 공항 외부에 머물던 2만여 명의 여행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항은 다시 큰 혼잡을 빚었지만, 며칠을 두고 점차 여행객들은 섬을 빠져나갔다.

당시 이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제주공항에서 5일간 수고한 제주지방본부 소속 KT조합원들은 "힘들게 공항에서 기다리는 여행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밤새 항공사 직원과 기다리는 승객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등 공항이 매우 혼잡 했지만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얼어붙은 여행객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졌기를 바란다고 감회를 드러냈다.



최강한파와 폭설에 갇힌 정읍을 구하라 케이블 매니저 총 출동!

전북 서해안 지역은 올해 기록적인 폭설과 함께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대설특보까지 발효됐던 정읍지역은 호남과 충남지역을 통틀어 가장 많은 37cm 이상의 눈이 쌓였다. 6년 만의 큰 눈이다. 설상가상 53년 만에 불어 닥친 강풍과 한파까지 겹쳐 눈은 녹을 틈도 없었고, 도로는 눈에 파 묻혔다.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다.

정읍지역 내 180동의 비닐하우스가 높은 습도의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았고 KTX 운행도 지연되었다. 정읍시 산하 공무원 1,4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돌입, 트랙터 250여 대가 동원돼 고갯길 9곳의 도로를 보수하고 제설작업을 하는 등 대대적인 눈과의 싸움을 벌였다.

전북지방본부 익산지부 정읍지점 CM팀 16명 조합원들의 복구 현장 출동은 어느 때보다 잦았다. 워낙 많은 양의 눈이 내려 도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피해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태인용호 18북1호-14호구간은 눈 무게로 인해 나무가 넘어지는 바람에 케이블 장애는 물론 전주까지 전도될 위험이 있었다. 소속팀 전 조합원은 장비를 투입해 나무를 제거하고, 전주를 보강하는 한편 케이블 이도 조정 작업까지 마무리해 통신서비스를 무사히 재개시켰다.

정읍 고창 간 4미터 지점에서는 맨홀이 만수해 광 접속점이 침수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맨홀 내 접속점을 보강해 불안정했던 서비스는 다행히 빠르게 정상화됐다. 정읍지점 국동욱 과장은 "전북지역에 내린 눈으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폭설에도 지장 없도록 앞으로도 정읍지역 통신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BIC 4’ KT가 이끌어갈 차세대 동력사업

KT는 기간 통신사업자로서의 완성도 높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차세대 역점 사업을 개척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와 사물인터넷(IoT) 그리고 클라우드(Cloud)라는 핵심 기반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 헬스케어에 비롯해 스마트 에너지, 보안 솔루션, 인터넷 뱅크는 KT의 미래를 이끌어갈 4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헬스케어, 환자 곁엔 언제나 KT가 있다

최근 들어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이 부쩍 늘고 있다. 맥박이나 혈당, 소비열량을 수시로 확인하며 건강을 체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헬스케어는 초기 개념정립 단계를 마치고 구체적인 미래상을 가늠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기능의 첨단 상품이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다.

KT는 헬스케어가 BT(생명공학기술)와 IT(정보기술)의 융합,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원거리에 있는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유헬스(U-Health)를 시작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스스로 자신의 영양 섭취, 운동량 그리고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sHealth)와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기기가 결합된 모바일 헬스(mHealth) 등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스마트’와 ‘모바일’ 헬스를 포괄하며 건강 정보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로의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을 절약하는 스마트 에너지

KT는 오래 전부터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현재 KT-MEG(Micro Energy Grid)를 통해 경기도 과천 에너지 관제센터에서 전 세계 280여 사이트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심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목포 중앙병원의 경우 최근 2개월 간 에너지 비용을 무려 73%씩이나 절감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최대 장점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전국에 10%만 적용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5기를 줄이는 커다란 효과가 있다. KT는 현재 기가 IoT 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 삼성전자, 노키아, 차이나모바일 등 ICT 기업들과 협력하고 k-champ의 기술 개발과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IoT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와 미디어, 무인 자동차, 빅데이터 분석을 연계하여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서는 ICT 융합형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금리 k뱅크로 대출 문턱을 낮춘다

현재 신용평가시스템에는 Thin-File 고객 1,046만 명이 존재한다. 최근 3년 이상 신용거래 실적이 없어 정확한 신용평가를 받지 못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고객들이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신용거래 이력으로 신용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k뱅크의 주주사가 보유한 압도적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k뱅크는 국내 과세대상 개인사업자의 70%에 해당하는 가맹점포와 국내 GDP 대비 약 17%, 민간소비 지출규모의 35%에 해당하는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거래 내역과 더불어 개인 자금의 이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새로운 신용평점을 통해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서 중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역 상권 분석, 개인 상환 능력을 분석한 자영업자의 창업지원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고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간편심사 소액대출로 순간적인 금융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개인의 신용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보안 솔루션의 최고 강자

kt ds는 지난 연말 앞선 빅데이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안 솔루션 사업을 시작했다. 보안전문기업 데이터와이드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분석 솔루션을 공동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kt ds는 빅데이터 기술과 데이터와이드의 위험관리 솔루션을 결합해 금융권과 공공시장에서 뜨겁게 떠오르는 ‘보안사고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을 오픈소스 빅데이터로 확장하는 중이다. kt ds는 ‘빅펜스(Big Fence)’로 명명된 자체 개발 빅데이터 기반 산업 특화 솔루션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안사고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의 실시간 이벤트 처리와 기계학습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kt ds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정보유출 이상행위 분석기술은 KISA가 분류한 국민안심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kt ds는 뛰어난 솔루션 전문업체와의 제휴로 빅데이터 기반 산업 특화 솔루션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KT와 함께 떠나는 편안한 여행길

해외여행의 든든한 동반자 KT 서비스



지난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에서 여행을 즐긴 출국자 수가 63만4천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9% 증가한 수치로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명절은 물론 대체 휴일이나 황금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졌다. 해외 여행객을 위해 KT가 준비한 알찬 서비스와 꿀팁을 소개한다.



전천후 스트리밍 앱, 지니 뮤직

지니뮤직은 630만 곡 이상의 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유무선 음악 서비스다. 즐거운 여행길, 들뜨고 설레는 마음에 신선한 활력소가 될 음악을 찾는다면 지니 '오늘의 선곡'을 추천한다. 일별 추천곡 리스트와 분류별 선곡리스트가 준비돼 있다. 장르별, 테마별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선곡이 더욱 쉬워졌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도 없다면 지니팩을 이용하자. 지니팩 사용자라면 공항에서 올레 기가 WiFi를 이용해 스마트 무제한 이용권을 사용하면 된다. DRM 파일로 내 스마트폰에서만 재생되는 음원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장거리 비행이나 여행지에서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올레 기가 WiFi만 접속하면 혜택제공, 클립

클립은 기존의 모카 월렛 어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GPS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준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WiFi 접속을 하면 면세점 할인, 공항철도 할인, 환전 할인 등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항에서 활용할 쿠폰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핫클립 기능도 있다. 주변 정보가 아



KT trade union

30
31

나라, 방문 예정인 곳을 검색해서 나중에 사용할 할인 및 혜택 쿠폰을 클리핑(수집)하는 기능이다. 클리핑 된 쿠폰은 해당 위치에 방문하면 스마트폰 푸시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놓칠 염려도 없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BC카드 유니온페이

해외 여행 중 현금 보관은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가급적 여행자 수표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신용카드는 분실 하더라도 서둘러 신고하면 부정 사용된 카드 결제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긴급 대체카드(Emergency Replacement Card)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여행 중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안심할 수 있다. BC카드는 카드 발급 시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카드복제로 인한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

BC 유니온페이 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오프라인 결제 시 발생하는 해외 사용 수수료 1%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BC카드사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사전 신청하면 캐쉬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BC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여행 떠나기 전, KT 로밍센터 방문

KT는 해외로 출국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올레 로밍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음성 및 문자 로밍 요금이 1만원, 3만원, 5만원, 8만원, 10만원(이후 10만원 단위)를 초과하면 문자로 안내해 주는 로밍요금알림 서비스, 음성 및 문자 로밍 요금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면 로밍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로밍안심차단 서비스 등 KT 안심로밍으로 요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해외에 도착하면 지정된 번호로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루 1만원으로 WiFi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로밍 예그도 있다. 일본, 미국, 베트남, 중국,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9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행지에서 와이파이 존을 찾아 헤맬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로밍 관련 서비스가 있으니, 로밍 콜센터(국내: 1588-0608, 해외: +82-2-2190-0901)나 PC와 mobile, 공항에 위치한 로밍센터에 방문해 자신에게 맞는 로밍 상품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최저가 호텔 예약하고, 데이터로밍 할인도 받고

해외여행 갈 때, 최저가 호텔 검색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익스피디아(expedia)에서 호텔을 예약하면 1박 당 데이터로밍 무제한 1일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호텔 예약과 동시에 여행지에서 무제한 데이터 혜택으로 더욱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roaming.olleh.com [로밍혜택] 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끝으로, 해외에서 사용할 충전기와 어댑터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KT 공항로밍센터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항 라운지 이용, 멤버십 포인트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알차게 활용해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겨보자.



Voices of Readers

고객의소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새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mabin@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홍성지부 전창규

2015-2 사번 신입사원이다 보니 "새희망의 길"을 접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길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 소속이 다른 동료들의 새로운 소식, 와인 마케팅, 국외 겨울여행지 같은 새로운 정보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초년생으로서 다소 생소하였던 연말정산 같은 팁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새희망의 길"을 구독하겠습니다. 알짜배기 정보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익산지부 근산지점 CS컨설팅팀 고재영

기가인터넷 100만 달성을 목표로 정말 바쁜 한 해가 되었습니다. 퀴즈도 오랜만에 참여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 해처럼 좋은 소식만 가득하여 '새희망의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산지부 김완호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김완호입니다. 정답을 크게 외칩니다. "금연"

서대구지부 이해숙

의리와 애정, 다섯 분의 사우님들이 30년 세월을 뛰어넘은 듯.. 아주 잘 하셨습니다. 파이팅!

경남유선운용센터지부 강경호

2011년 6월 교환기 원격제어장치 설치작업을 매일 계속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금연결심을 하고 그 순간부터 실행에 옮겼습니다. 흡연 20년이 되었지만 나 자신이 금연하자고 결심하니 금연이 자연스레 됐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담배연기가 구수하다거나 술자리에서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내 완전한 금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송파지부 박정상

2016년 바뀌는 복지제도 및 2015년 노동조합의 결실을 한 눈에 보니 그동안 노동조합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힘찬 노동조합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IMO운용센터지부 비즈메카플랫폼운용팀 정원환

단체교섭 내용과 일년 동안 해온 일들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 내용 이해가 쉬웠습니다. 연말정산 꿀 팁은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와인 마케팅 이야기는 와인을 그냥 술의 한 종류로만 생각했었는데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KT 상품 하나 하나에도 스토리를 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산지부 기업사업컨설팅본부 보안컨설팅팀 유종선

새희망의 길을 입사 3년 만에 처음 접하였습니다. 아마도 vol.22 인 것으로 보아 꾸준히 발간되었던 듯 싶네요. 우연히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하는 호기심에 책자를 찢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놀라웠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알찬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각종 뉴스, 단체협약 내용 소개, 연말정산 팁 등 유익한 정보들을 깔끔하게 제작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알기 쉽게 단체교섭 합의내용을 풀어써 설명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다음 회차를 기대해 봅니다.

대전유선운용센터지부 홍성찬

2015년 합의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지를 만들어 주세요.

익산지부 조수연

이번 기획특집으로 인해 12대 집행부가 1년 동안 걸어온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해결한 건의사항들이 잘 이행되길 바라며, 조합원을 위해 애써주신 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KTTU QUIZ

올해 신설된 휴가 제도로 장기근속자에게 2~3주간 휴가를 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20페이지 참조)

정답 보내주실 곳 : mabin@kt.com(김민수 편집국장)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WED
may, 27 2015

NEWS

No 34747/53

직장인 김모씨(46)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가입한 A상조업체가 폐업하고 B업체로 인수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 지난 5년간 60여회에 걸쳐 200만원을 납입해 온 김씨는 애타는 마음에 A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A업체는 "회사가 B상조업체에 인수됐으니 B업체로 문의하라고 했다" 그런데 B업체에선 "A업체로부터 회원정보는 넘어왔지만 그간 A업체에 납입한 돈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 없다. 앞으로 새로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만 상조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답이 돌아왔다.

더 문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전체 낸 돈의 20%에도 못 미친다는 것.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고자 했지만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고객 납입금으로 신고·예치한 돈이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객 피해보상에 대비해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낸 돈의 절반을 공제조합에 적립해 두어야 하지만 A업체가 회원수와 납입금을 축소해서 신고해 온 것이다. 김씨는 "상조업체가 갑자기 망했다고 하는데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중간기사 생략

문제는 부실상조업체들의 난립이다. 상조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기반의 상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2004년 98개였던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09년 317개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매년 10~20개씩 감소해 지난해 9월 말에는 228개까지 줄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8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돼 문을 닫았다.

… 중간기사 생략

국내 상조시장 감사를 담당하는 봉원오 공정위 조사관은 "2010년 상조업체들에 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법 규정이 생긴 후 지난 5년여 동안 총 9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특히 올 1분기에만 8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건 꽤 큰 숫자다. 8개 업체 중 2곳은 자진 폐업했지만 나머지 6곳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고객 납입금 중 50%를 예치해야 하는 등 상조업 관련 규정을 어겨 강제로 계약해지 당하고 등록이 취소된 사례다.

이중에는 강원도 지역에서 상조로 처음 등록한 AS 상조동 규모가 꽤 큰 업체도 포함돼 있다"며 한마디로 상조업체 사기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 1809호 (2015.05.27~06.02일자)기사입니다>

(주)다운플랜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 부실상조 업체는 고객납입금(회비)을 훼손하여 부실이 발생하였기에 (주)다운플랜은 고객납입금(회비)을 100% 은행에 적립하고 있으며,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준용하여 고객납입금의 50%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주)다운플랜 회원은 상조 또는 웨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님의 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본사에서 직접 전국을 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다운플랜은 전국 다수의 장례식장과 웨딩홀을 계약하여 회원님께 시설 사용료를 할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신청 | 1577-1555 www.daonplan.com



(주)다운플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 본사 6층
TEL. 1577-1555, 031-727-4803~5 FAX. 031-727-4809